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남북평화통일기도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 예배로의 부름	다함께
◆ 경배의 찬송	20. 다 감사드리세
◆ 공동기도	다함께

참 좋으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힘을 가진 이들이 약한 이들을 유린하는 곡절 많은 세상에 사느라 우리는 지쳤습니다.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벌써 59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여전히 식민지 백성인 양 불안합니다. 가난한 생존마저 유린하려는 폭력의 어두운 그림자가 한반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시는 주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십시오. 남과 북이 하나님의 손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은 죄를 씻고, 인생을 깊게 만들고,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인생을 하나님께로 이끈다 배웠습니다. 분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을 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당신의 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시36:6-7
◆ 교 독 문	70. 광복절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대표기도	I. 박인혁 선생 II. 김재흥 목사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272. 인류는 하나 되게
성경봉독	I. 창45:1-8
	II. 창33:1-11
찬 양	백승민 집사
말 씬	I. 깨달음은 뒤늦게 온다
	김기석 목사
	II. 형님의 얼굴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26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
십시오. 사람들 앞에 있는 걸림돌은 치워 주고, 막힌 담은
허물고, 외로운 이들의 좋은 벗이 되십시오. 머무는 곳마다
평화를 만들고, 이르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우리를 불러 당신의 일을 맡겨주시니 고맙습니다.
연약하지만 이제 욕망에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길
로 삼아 살겠습니다. 사랑과 이해의 눈으로 이웃을 보고,
관용의 손길로 이웃을 대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아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수양회 보고회	신명기 강해(11)
진행 : 최윤선 집사	기도 : 이소순 집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황경순 집사 윤정덕 장로	인도자 이순정 권사

8월	영접위원	조병무	김용길	박범희	이순정	박옥순	박미영
	헌금위원	윤정덕	이인웅	김중수	김애경	구명자	김명순

황색 피부의 천사

피부 색깔이 황색인 천사가 있다면 놀라운 일일 것이다. 모두들 천사는 백색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글로리아 김(61, 한국명 김연웅) 할머니는 매일 새벽 2시면 눈을 뜬다. 부엌으로 가서 커다란 냄비에 감자와 토마토, 국수 가락을 넣은 수프를 끓인다. 비닐 봉지에 빵과 과일도 챙긴다. 자그마치 200인 분량이나 된다. 20년이나 된 낡은 승합차에 음식을 싣고 거리로 나서면 새벽 4시. 공원과 거리를 누비다가 노숙자를 찾아내면 클랙슨을 빵빵 울리면서 “할렐루야”를 외친 다음 음식을 건넨다. 이것이 지난 16년 동안 할머니의 한결같은 일과다. LA 노숙자들 사이에 ‘수호천사’로 통하는 김 할머니는 “내가 돕지 않으면 홈리스들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며 “노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샐러지까지 딸린 휴식처를 마련하는 게 꿈”이라고 말한다.

승의여고를 나와 1976년 홀로 미국으로 건너가 간호사로 플로리다에서 일하면서 모셔온 어머니가 작고하면서 어머니 앞으로 나오는 연금을 꼬박꼬박 모아 불우이웃 돕기를 시작했다. 86년에 LA에서 ‘시온복음선교회’를 만들면서 본격적으로 노숙자 돕기에 나섰다. 이후 16년이 지나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김없이 끼니를 챙겨 주는 할머니를 LA 거리 노숙자들은 사랑과 존경을 실어 ‘마다’라고 부른다. 할머니가 보살피는 홈리스는 백인, 흑인, 황인, 히스패닉 계 등 피부색을 문제 삼지 않는다.

“몸이 약한 노숙자들이 패스트푸드를 먹으면 건강을 망친다”며 빵, 과일, 야채 수프로 짜여진 메뉴를 고집하는 김 할머니는 매일 코리아타운의 한인 상점이나 히스패닉 상점에 들러 빵과 과일을 기증받는다. 주말에는 교회 교인들이나 사회 봉사 명령을 받은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받지만 벌써 손가락도 좀 굵고 백내장으로 눈이 침침한 백발의 김 할머니는 주로 홀로 승합차를 몰고 거리로 나선다. 김 할머니의 선행은 현지 신문인 LA 타임스에 여러 차례 기사화되기도 했다. 올 초에도 공원을 돌며 부랑자들에게 빵과 수프를 나눠주는 할머니를 ‘육신과 영혼을 먹인다’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성경에서 우리는 천사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다(성경에서는 천사를 ‘주

의 사자'로 번역하기도 한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 천사는 그분의 뜻을 받들어 인간을 도우려고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는 인간을 '주의 사자'로 쓰시는 경우를 더 많이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될 수 있다. 글로리아 김 할머니는 한국인의 모습을 한 천사라고 할 수 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천사의 삶을 살았는지 반성해 본다. (정충영, 경북대학교 교수)

거지에게서 받은 적선

제법 복적대는 거리였다. 어떤 사람들은 선물 꾸러미를 지긋이 내려다보며 행복에 젖어 있었다. 햇살은 밝게 빛나고 모두들 기쁨과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한 사나이가 길을 가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그의 앞에는 늪어빠진 거지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 눈물어린 충혈된 눈, 파리한 입술, 털복숭이 누더기 옷, 더러운 상처... 가난은 어찌면 이토록 처참하게 이 불행한 인간을 잡아먹는 걸까!

거지는 사나이를 향해 빨갛게 부푼 더러운 손을 내밀었다. 거지는 사나이에게 신음하듯 중얼거리며 동냥을 청했다. 사나이는 자신의 옷에 달린 호주머니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했다. 지갑도, 시계도, 그 흔한 손수건 한 장 없었다. 그는 사실 가진 게 하나도 없었다.

거지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다.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사나이를 향해 내민 거지의 손은 힘없이 흔들리며 떨리고 있었다. 사나이는 그런 거지의 손길을 내려다보며 당황한 나머지 어쩔 줄 몰라, 그 더러운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용서하십시오, 형제여. 나는 아무 것도 가진 게 없어요.”

거지는 충혈된 두 눈으로 물끄러미 사나이를 바라보았다. 거지의 파리한 입술에 가느다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거지는 사나이의 싸늘한 손가락을 꼭 잡았다.

“괜찮습니다, 나리.” 거지는 사나이를 향해 속삭이듯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그것도 역시 적선이니깐요.”

그 때 사나이는 자기 자신이 거지로부터 적선을 받았다고 느꼈다.

(투루게네프, <거지>)

■ **마/음/으/호/읽/는/글**

그는 오십니다

당신은 그의 조용한 발자국 소리를 못 들었습니까?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순간마다 해마다, 날마다 밤마다,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술한 노래를 마음의 술한 느낌에 따라 불러왔지만

그 모든 가락이 언제나 부르짖었던 것은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햇빛 밝은 사월의 향긋한 날엔 숲 속 오솔길로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칠월 밤의 비 오는 어둠 속엔 천둥 치는 구름 마차를 타고

그는 오십니다, 오십니다, 늘 오십니다.

슬픔에 잇따른 슬픔 속에 내 가슴을 밟는 것은

그의 발자국, 내 기쁨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그의 발이 밟는 황금의 촉각입니다.

(타고르, <기탄잘리 45>)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안정숙 김정길 최숙화 최종원 윤수진 김윤수 박옥경 김희진 박홍재
윤석철 장혜숙 임보람 노용래 강인식 김정숙

월정헌금:

정원석 김현영 김홍기 정두리 최주환 문복순 황원순 김남중 오복순
황자순 전영규 김경수 노미향 김승현 김수진

감사헌금:

김기석 김재홍 최희영 윤정덕 구성실 윤석철 장혜숙 김철수 방현복
이부방 이인섭 정두리 이재문 김준호 광혜자 구명자 장재영 김재영
임 영 정경례 백묘현 임창선 유영남 이봉옥 김혜선 김필순 오진훈
노순옥

생일감사헌금:

정영선 권미정 안정숙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쉽	쉽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종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흥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평화통일기도주일** : 오늘은 남북교회가 함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주일입니다. 분단 59년, 이별의 세월이 너무 깁니다.
2. **월례회** : 예배 후 제2·4남녀 선교회 월례회로 모입니다.
3. **수양회 보고회** : 오후 집회는 수양회 보고회로 모입니다. 마무리를 잘 해야 다음에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4. **배너 만들기** : 여선교회가 중심이 되어 기독교의 절기 상징을 담은 배너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손재봉틀이 있으신 분들과, 배너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9일(목) 오전 10시 교회에서 모입니다.
5. **남선교회 수련회** : 서울연회 남선교회가 주최하는 여름 수련회가 8월 20일, 21일 양일간 열립니다.
6. **신앙실천** :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한 공부가 꼭 필요한 때입니다. 좋은 책을 선정하여 역사 공부를 해보십시오.

* 헌화 : 윤미경/윤수진 집사(아버지 생신 감사)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